

(시) 조선의 환호성

한 광 춘

격정이 파도치는
봄의 이 장산
하늘땅을 떨치며
누리로 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
조선의 환호성이여

모시었어라
우리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여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가
억만년 미래에로 즐기자여 이어졌나니

심장으로 말들고
운명의 어버이로 따르는 분
우리 생명 및 내구는 당시 말 하나이듯
그이는 오직 한분
우리 당을 배송해로 이끄는 명도자

온갖 도전을 것부서나가는 투쟁 속에서
부린 삶을 누려가는 생활속에서
매일 때 시각
심장으로 절감하지 않았더나
그이가 강철의 힘을 지닌 위대한 당임을
그이가 천만삶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임을

절대의 지지와 빛음의 환호성에
빛나는 우리 대양
그이는 천만년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내이실분
오직 자주의 한길에서
백승의 불은기를 휘날려가실분

인민은 밀노파

그이께서 활동하시는 주체의 당
백두의 바위에 뿌리내린
우리 당의 퀄승물배성을
밀노라 모든 꽃과 괴상이 물폐날
아름답고 눈부신 해일을

아, 혁명의 희비를
조국에는 번영을
천만심장엔 창창 삶의 박동을 주는
조선로동당
우리의 길정은 동지이시여

발으시라
인민이 드리는 영광을
주체혁명위업의 환성도
최후승리의 천관한 해동이도
그이 품에서 이룩되고
그이 품에서 밝아오리니

천지풍파가 물아쳐도
당중앙을 웅용하여 천검만검의 성새를
이룬
역적의 그 신념 그때없으리
원수님 두리에
더 굳게 풍치고 풍치어 노도치가리라
걸음걸음 일심단결의 승리를 떨치며

아,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同志
그이는 조선의 심장
영원한 승리의 기치
그이 계시어 모든 영광 맞이할
인민의 환호성 조선의 환호성이여

그이 아닌 그 누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역사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올 수 있
으랴

수령님과 장군님의 이 조선을
핵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올려세울 수 있
으랴

진정 그이 아닌 그 누가
백두의 대업을 만대에 맡힐 수 있으랴
인민의 운명을 끌까지 책임지고
왕망한 미래에도 활도 할 수 있으랴

그이는 천만의 힘
그이는 우리의 태양
천만한 그 빛발로 밝고밝은
조선의 하늘과 땅이
그 품에서 무궁한 인민의 세월이

수천의 손과 손들이
붉은 대표증을 높이 들여
당대회 결정서를 엄숙히 세택 할 때
온 나라 수백만 당원들이
함께 손을 들었다

그날 그 시작
어머니당이 이 아름도
결정서의 구절구절을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았다
높뛰는 가슴마다에
당의 부음을 조아새긴 전사들이
신의 깊이 알며섰다

불러는 열망으로
더 넓어진 가슴을
천백대로 용솟음치는 힘이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시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복종처 나아가는 일심의 대오여
로운 전투목표를 내걸고 드센
생산률 격진을 끌어내고 있다.

행복의 봄씨앗 뿐려가는
천아미나미에 당대회의 정신이 나래친다
또 한차지 잘 익은 쇠풀을 뱉어내는

기아에 알아오리라

높이 반들어온
조선로동당의 위원장

영광을 드리노라
만리마의 나래를 펼쳐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거룩한 그 손길에
우리 당을 백승에 이끄시는

성스러운 그 자축자축에

오,
세상천지가 뛰비된다 해도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만장악한 천만
군민

그 품에서 깊이 행복할 위대한 인민은
영광 영광을 드리노라.
우리 원수님에 영광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다름아닌 우리의 손으로
만복을 누려갈 메일의 모든것을
자강력의 억센 힘으로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판월할
당대 회 결정서는
천만심장의 뿔은 피를 끓여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부름

향도의 우리 당을 따라
앞당겨오는 친란한 그 미래

오,
위대한 승리와 기적의 기념비들을
온 세상이 보관듯이 세워갈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에
천만아들딸들의 심장에
우리 당 제7차대회 결정이 있다!

(시) 나래치자 만리마속도로

박정철

우리 당이 가리키는 비정 표파라
기적파 대비약의 기념비들을 이 땅에 안아
올리며
과학건설의 첨단률파로
지식경제의 모양을 짓자제 그리며
이 땅이 하늘아래
만복의 향기를 가득 새우며

주체철이 사풀치는 용해장에서
발전소와 지하막장
우리 우뚝 솟구치는 려명지리 충무우에서
이 땅의 주민들이 먼개쳐 내닫는다
승리의 봄파
총진군의 준마를 달고

위대한 당중앙의 부름에 회답하여
백만천만이
만리마선구자가 되리라
일터와 초소마다 불이 달렸다
어디서나 떠져 오르는 자장면에 소리
총진군전역이 경쟁열통에 휘감겼다

천만대적을 달아래 굽어보는
우리 장군의 필승의 기개
백두산악파도 같이 억세인 그 의지로
만리마의 나래천 조국이며
혁명의 최후승리가 파도쳐온다

도전도 역풍도 파악히 맞아
이 땅에 떠오르는 사회주의강국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폭풍을 안고
조국이며
인민이며
만리마속도로 총공격 앞으로!

(시) 우리 원수님께 영광을

주 광 일

5월의 삼천파 봄의 삼천리우에
태여 만발하라
조국이며 인민이며
태양조선의 궁지풀

한껏 누리에 떠쳐올리라
우리 원수님께 영광을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이신
인민의 어버이
그이 품에 애기 만복을 누려갈

이 나파 천만이불풀들이
영광을 드리노라
우리의 김정은동지께

원수님만 믿고 사는 인민이 떠쳐올린
감각의 폭풍 환희의 폭풍
그이께 드리는 영광은
민심의 바다에서 솟구치고 솟구치는
흥모의 열파

뜨거운 정으로 삶가 얹은 죽하의 꽃다발

김춘길

용해 콩의 피어운 심장에서
결정서의 구절구절이 세차게 맥박친다

비단별로 살천리를 휘감을
직포공의 그 마음에도
눈부신 새 거리를 세워가는
전진자들의 이글거리는 눈동자에도

승리의 표대로 비껴있는
당대회 결정서

보파
당중앙의 제일권우들인
영웅무쌍한 명사들이
억세세 블어원 무직의 총대를
과학기술의 통파를 태고
세계를 앞서나아가는 내 조국의 위용을

세차게 고통치는 우파의 승질이에
물이 젖게 가루가 되어도
당질정을 몸속마저 끌까지 지켜갈
수백만 당원들의 그 의지

천석의 신조로 나래치는 이 땅
한기운을 흘려나온다

기아에 알아오리라

그 이불은 불펴보아도
온몸에 뻗쳐오는 이 힘 이 열정

세기를 닦겨
세월을 닦겨

밀써 눈앞에 보제 하누나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봉우리

실험을 한데에!
우리 대에 민족의 대업을!

강산을 떨치는 만리마의 호용소리

그것은 재집을 믿는 강자들

배일을 안고 불타는 열의 인간들이

시대를 진감하는 산울림소리

날으자 만리마여

산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

가 마련되었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뻔
할 기업소의 일군들과 둘로
자, 기술자들은 기계제작공정

을 펼친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뻗쳐나

총정의 70일 전투의 하루하
루를 위훈으로 수놓아왔다.

도당위원회의 학교공장성
의 적극적인 저도방조밀에
련합기업소에서는 현생 생산

을 다그쳐면서 동시에 기계
제작을 대담하고 품

이로 고맙고 높아졌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전설지

휘부를 나오고 설계의 시공,
자재와 설비보장을 짜고들면

서 전투작전과 지원을 펼쳐
있지 해나갔다.

전설지휘부에서는 일군들
과 전설자들이 빠른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
로 부탁하면서 에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전 측 공사를
분분하게 내밀도록 적극 불

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적
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내부에 비를 막구 동원하여

많은 자재와 시간을 절약하
면서 전례 없는 혁신을 일으

며 특파기자 박봉석

30년래 최고 실적을 기록한 기세로

덕천지구 탄광 합기업소에서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업관철을 위하여 헌법탄광산부생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촉음

신이 계속 높이 발휘되고 있
다. 며칠 동안에 억수로 쌓아
올 불을 다는 화설식정치사업

이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속에
렌속천광, 렌속발파와의 메아리
가 지침을 위치한다.

렌합기업소에서는 충정의
제70일 전투에 이어 또 다시 새
제70일 전투에 일신한 청년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에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일군들
과 일군들로 일신한 청년들은
제70일 전투를 펼친다.

제70일 전투를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보고는 북남관계와 우리 민족의 앞길에 드리웠던 점은 구름을 밀어내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불멸의 등대이다. 역사적인 보고에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광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답한 원칙과 법칙들이 전진적으로 밝혀져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보고를 강령적 지침으로 새겨안은 전체 조선민족은 지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울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3대현장에 관하여』에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입니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책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근본방법이다.

자주성이 없으면 민족의 존재와 발전에 대해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오직 자주성을 생명처럼 키우기 위해 외세의 어떤 압력이나 간섭으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민족만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발전을 힘있게 주동해나갈 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원회의 본성과 구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파남으로 끌려온 민족의 혈액을 다시 빚고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운동 그 자체가 외세의 저해와 간섭을 배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세에게 빠았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도에 통일된 강국이 일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외세가 우리 민족을 인위적으로 분열시킬지도 또 조선민도에서 진강완화와 평화, 북남판끼개선의 국민이 조성될 때마다 북남대결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예우한다.

북파 남은 하나의 피를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할 한민족이다. 북파 남이 회복하고 단합하여 과국에 체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뛰어워야 해도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절제하여 의지하여야 한다.

제 집안문제는 용당 주민들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북파 남의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에 사활적인 피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 민족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 날의 악인민족이 아니라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 있는 민족이다.

나머지 통일문제를 고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판점과 립장, 들픈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지게 만드는 어제 국주의자들의 온갖 행동을 짓부시며 솔피와 영광을 이룩해온 금지높은 띡 사이이다. 주체사상의 윤리로부터 출발한 민족자주정신은 세계적인 대정치종파와 접촉인 단란판도로 전진시켜온 핵승의 기지이다. 조직동적인 사변들로 가득한 8. 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서 외세의 방해책들이 이루어져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핵승의 기지이다.

북파 남의 온 거해는 민족자주주의식을 품으며 민족자주강장을 마비시키는 사태와 외세의 혼을 헐쳐져 민대대혁명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원회의 본성과 구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파남으로 끌려온 민족의 혈액을 다시 빚고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운동 그 자체가 외세의 저해와 간섭을 배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세에게 빠았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조선민도에 통일된 강국이 일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외세가 우리 민족을 인위적으로 분열시킬지도 또 조선

민도에서 진강완화와 평화, 북남판끼개선의 국민이 조성될 때마다 북남대결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예우한다.

북파 남은 하나의 피를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할 한민족이다. 북파 남이 회복하고 단합하여 과국에 체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뛰어워야 해도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절제하여 의지하여야 한다.

제 집안문제는 용당 주민들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북파 남의 우리 민족이다. 조국통일에 사활적인 피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 민족이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열을 강요당하였던 어제 날의 악인민족이 아니라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힘 있는 민족이다.

나머지 통일문제를 고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판점과 립장, 들픈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지게 만드는 어제 국주의자들의 온갖 행동을 짓부시며 솔피와 영광을 이룩해온 금지높은 띡 사이이다. 주체사상의 윤리로부터 출발한 민족자주정신은 세계적인 대정치종파와 접촉인 단란판도로 전진시켜온 핵승의 기지이다. 조직동적인 사변들로 가득한 8. 15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서 외세의 방해책들이 이루어져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핵승의 기지이다.

북파 남의 온 거해는 민족자주주의식을 품으며 민족자주강장을 마비시키는 사태와 외세의 혼을 헐쳐져 민대대혁명해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민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해온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민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해온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고 조선민도와 지역의 지배자로 군림해온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통일운동을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고 헤아리며 외세에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민족자주구애에 걸쳐 물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온 민족이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풀어쥐고 그것을 치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위원회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그 어떤 반동 세력도 민족자주의 기지높이 삼천리강과 푸른 우에 올세계가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계획에 맞게 그리고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거해는 우리 민족을 숨기고 헤아리